



“꼭 투표하세요!” 가수 아이유가 11일 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를 마친 후 팬들에게 투표를 독려했다. 아이유 인스타그램 캡처

“투표권 꼭 행사하세요” 선거독려 나선 스타들

아이유 등 사전투표 ‘인증’

4·15 국회의원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예계 스타들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공익 캠페인과 사전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주권 행사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리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가수 아이유를 비롯해 배우 신민아, 유선 등은 총선 사전투표가 진행된 10일과 11일 각 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배우 정우성은 사전투표 후 손등에 투표 도장이 찍힌 사진을 공개했고, 김정난과 가수 이적도 사전투표소 앞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며 투표 사실을 ‘인증’했다. 스타들은 선거 당일에도 꼭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스타들 가운데 이번에 만 18세 유권자가 되어 사전투표를 통해 처음으로 권리를 행사한 걸그룹 있지의 류진과 채령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소중한 주권을 잘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면서 “한 표 한 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신중히 임했다”며 투표에 대한 관심을 유도했다.

이들에 앞서 정우성과 방송인 유재석 등 세대를 아우르는 스타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손잡고 투표 독려 캠페인 ‘잘 뽑고 잘 찍자’를 진행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들은 “국민의 권리인 투표권을 꼭 행사하자”며 투표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이들뿐만 아니라 총선일이 다가오고 각 정당과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유세 현장의 스타들도 시선을 붙잡고 있다. 각각 형과 남편이 입후보한 배우 유오성과 심은하 등은 자신들의 유명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선거운동을 돕고 있다. 특히 심은하는 12일 “4월15일은 국민의 마음을 표현하는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사전투표를 안했다면 4월15일 투표에 참여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소중한 한 표로 꼭 행사해 달라”는 전화 음성메시지로 투표를 독려하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스타 연출자 품고 진화하는 음악 예능프로그램

음악 예능 대세는 ‘가수 만들기’

‘내안발’ ‘악인전’ ‘탑골랩소디’
非가수들의 무대 도전 선보여
‘트롯신이 떴다’는 시즌2 논의

음악 예능프로그램이 또다시 진화한다. 시청자에게 낯익은 장르로 자리 잡은 음악 예능프로그램들이 ‘스타 연출자’들을 전면에 내세워 무대를 넓히는 등 시청자의 눈과 귀를 동시에 사로잡을 다양한 형태의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

● ‘탈(脫) 스튜디오’ 음악 예능

최근 음악 예능프로그램들이 스튜디오에서 벗어나 야외로 무대를 확장하고 있다. 그동안 주로 실내 스튜디오에서 녹화해 방송하던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다. 그 흐름을 주도하는 프로그램은 역시 SBS ‘트롯신이 떴다’다. 설운도, 김연자 등 트로트 가수들이 베트남에서 공연을 펼치는 과정을 담으면서 무대의 매력과 관찰 예능프로그램의 재미를 동시에 잡았다. 최고 시청률 15.9%(닐슨코리아·3월18일)를 돌파하고 인기몰이 중이다.

이들은 시즌2의 무대로 국내를 염두에 두고 있다. 시즌1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연출자인 박승영 PD와 제작진은 최근 시즌2 제작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출연 가수들의 고향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버스킹 공연을 벌이는 콘셉트를 구상 중이다.

tvN 유호진 PD의 선택도 다시 음악 예능프로그램이다. 방송가에 따르면 유



개그맨과 배우들의 가수 도전기를 다룬 KBS 2TV ‘악인전’(사진)을 비롯한 최근 음악 예능프로그램들이 저마다의 매력을 내세워 시청자와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 KBS

PD는 최근 전국 각 지역의 노래 실력자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는 새 프로그램을 기획 중이다. 이를 위해 지방 출신 가수들도 섭외하고 있다. KBS 2TV ‘1박 2일’ 시리즈로 이름을 알린 유 PD는 작년 tvN으로 이적해 ‘수요일은 음악프로’를 내놨다. “꼭 해보고 싶었던 장르”였던 만큼 한 번 더 음악 소재 프로그램에 집중할 예정이다.

● ‘가수 만들기’ 소재도 인기 만점

현재 방영 중인 엠넷 ‘내 안의 발라드’, 25일과 5월2일 각각 방송을 시작하는 KBS 2TV ‘악인전’과 케이블채널 E채널 ‘탑골랩소디’는 방송인과 연기자 등 ‘비(非)가수’들의 무대 도전기를 콘셉트로 내세웠다. ‘내 안의 발라드’에서는 격투기 선수 김동현, 방송인 장성규 등이 발라드 가수에 도전하고, ‘악인전’에서는 개그우먼 김숙, 연기자 이주빈

등이 다양한 가수들로부터 음악을 배운다. ‘탑골랩소디’는 외국인들이 케이팝 노래로 경연을 펼치는 내용이다.

노래를 통해 대중에게 친숙한 연예인들의 숨겨진 매력을 드러낼 뿐 아니라 그동안 방송가에서 보기 힘들었던 스타들을 ‘멘토(선생님)’로 섭외하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 ‘악인전’에 나서는 가수 송창식, ‘탑골랩소디’에 출연하는 가수 세븐 등이 오랜만에 시청자와 만나는 또 다른 주역들이다.

연출자들의 변면도 화려하다. ‘내 안의 발라드’는 엠넷 ‘슈퍼스타K’ 시리즈의 마두식 PD가, ‘악인전’은 KBS 2TV ‘언니들의 슬램덩크’ 시리즈를 연출한 박인석 PD가 맡는다. ‘탑골랩소디’는 MBC ‘라디오스타’, JTBC ‘착하게 살자’ 등을 만든 제영재 PD가 E채널 이적 후 처음 내놓는 프로그램이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연예

9

2020년 4월 13일 월요일

스포츠동아

주진모폰 해킹 협박 일당 연예인 5명에게 6억 갈취

연기자 주진모 등 연예인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한 일당이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6억 여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2일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주진모를 비롯해 8명의 연예인에게 관련 협박을 한 30대 김모씨 등 2명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갈 등 혐의로 7일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8명의 연예인을 협박해 이들 가운데 여자 가수 아이돌 스타 등 5명으로부터 모두 6억1000만원 가량을 갈취한 혐의다. 나머지 세 명의 연예인은 돈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경은 김씨 등으로부터 협박을 받는 등 피해를 본 연예인들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다. 또 피해 연예인 가운데 김씨 등에게 돈을 보낸 이들 신원 역시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주진모는 휴대전화를 해킹당한 뒤 메신저 대화 내용 등 사생활을 유출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이에 경찰이 수사에 나서 김씨 등을 검거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조주빈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조주빈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주진모 사건을 언급하며 자신이 한 일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편집 | 김태건 기자 bong82@donga.com

방에서 즐기는 방탄 콘서트

18·19일 유튜브 방탄TV 채널서 과거 공연·팬미팅 8편 무료 공개

그룹 방탄소년단이 ‘안방 콘서트’를 펼친다. 신규 무대는 아니지만, 폭넓은 대중이 접할 수 있는 온라인 공연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모은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다양한 무대가 취소된 상황에서 이 같은 방식이 가요계에 확산할 것인지 여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방탄소년단은 18일과 19일 각각 낮 12시부터 유튜브 공식 채널 ‘방탄TV(BANGTANTV)’를 통해 ‘방에서 즐기는 방탄소년

단 콘서트(방방콘·BTS ONLINE CONCERT WEEKEND)’를 펼친다.

‘화양연화 온 스테이지(ON STAGE)’를 비롯해 ‘화양연화 온 스테이지:에필로그(ON STAGE : EPILOGUE)’ 등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개최한 공연과 팬미팅 실황 8편을 무료로 공개한다. 이들은 앞서 지난 달 30일 빌리 아일리시, 두아 리파 등 세계적인 스타들과 함께 미국 CBS ‘더 레이트 레이트 쇼 위드 제임스 코든(The Late Late Show With James Corden)’의 ‘홈 페스타’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홈 콘서트’를 선보였다.

이와 관련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클래식, 연극, 뮤지컬, 미술 전시 등 문화예술계 무대가 극장과 전시장 등 오프라인 무대 대신 온라인을 통해 대중을 만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국내 가요계에서는 일부 가수들이 콘서트 온라인 상영으로 팬들을 만나기도 했지만 일회성이거나 제한적인 무대에 그쳤다. 방탄소년단이 이번에 온라인을 통해 본격적으로 자신들의 무대를 공개하면서 국내 가요계에 이 같은 방식이 확산할지가 주목된다.

12일 가요계 한 관계자는 “대규모 콘서트나 팬들과 직접적 소통이 중요한 팬미팅 무대를 온라인으로 선보이는 건 아직 낯설다”면서 “녹화나 생중계 시스템과 온라인 소통망이 구축되어야 하는데 사실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오프라인 무대에서 팬들과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를 통해 잠시라도 소통의 끈을 이어가는 방식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여수 기자

코로나19 이기는 슬기로운 집콕운동 4 골반교정운동 : 비둘기 자세

집에서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집콕운동. 오늘은 골반 교정운동 중에서 비둘기 자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 먼저 몸을 옆으로 돌려 왼쪽 다리는 당겨주고 오른쪽 다리는 등 뒤쪽으로 바닥을 향해 내립니다.



2 손가락 끝을 세워서 몸을 위로 끌어주고 오른쪽 골반이 뜨지 않게 바닥 쪽으로 눌러줍니다. 가슴을 열어주고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시선은 멀리 바라봅니다.



3 오른쪽손을 펼쳐 머리 위로 끌어올리고 호흡을 합니다. 시선은 손가락 끝을 따라가며 오른쪽 다리 발 끝으로 손을 쭉 뻗습니다.



6 그리고 난 후 팔꿈치를 내려놓으며 오른쪽 골반을 누릅니다. 그 후 팔을 쭉 뻗고 고개가 바닥에 닿도록 하며 호흡을 합니다.



5 제자리로 돌아와 허리를 펴고 난 후 양손을 앞으로 뻗습니다. 이때 등이 말리지 않게 어깨와 가슴을 엽니다.



4 오른쪽 다리를 끌어 발등을 잡습니다. 이때 가슴을 펼치고 호흡을 하며 다리를 몸 쪽으로 천천히 당깁니다.

스포츠 733
일주일에 세 번 이상, 하루 30분 운동
(공동기획)
문화체육관광부·대한체육회
스포츠동아